

사회

다문화가정 관심사 '편견'→'교육·취업'
'판박이 조레' 현실 맞게 바뀌어야

인권위 토론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주된 관심사가 기존 '차별이나 편견' 문제에서 '교육과 취업' 분야로 급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조레 제정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대 옥경희 교수팀이 23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각) 주최로 열린 '인권관점에서 본 지자체 조레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지원조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관심 대상은 이전의 '편견'에서 '교육과 취업' 문제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 교수팀에 따르면 2008년 사회조사 통계 결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한글·문화·교육서비스(32.8%)'를 꼽았고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26.4%) ▲'경제적 지원'(17.6%)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17.0%) 등을 들었다.

이는 2006년에 실시된 조사보다 '교육서비스(25.7%)'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1%p 높아진 반면, '편견'(30.6%)을 꼽은 응답자는 4.2%p 낮아졌다. 또 '취업'(15.1%)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1.9%p 높아졌다. 최근 2년새 다문화가정의 최대 관심사가 '편견'에서 '교육과 취업'으로

광주·전남 다문화가족 지원조레 현황

Table with 3 columns: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레, 다문화가족 지원조레. Lists various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pective policies.

바뀐 것이다.

이에 옥 교수팀은 지자체들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조레 제정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의식변화와 지방 특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29개 지자체 중 다문화가족 지원 조레를 제정한 곳은 15곳으로 파악됐다. 이 조레는 지난 2008년 3월 국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레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전남의 지자체에서 제정·시행 중인 다문화가정 관련 조레는 '판박이' 조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문화가정의 의식 변화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조레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옥 교수팀은 또 광주·전남 대부분의 조레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 조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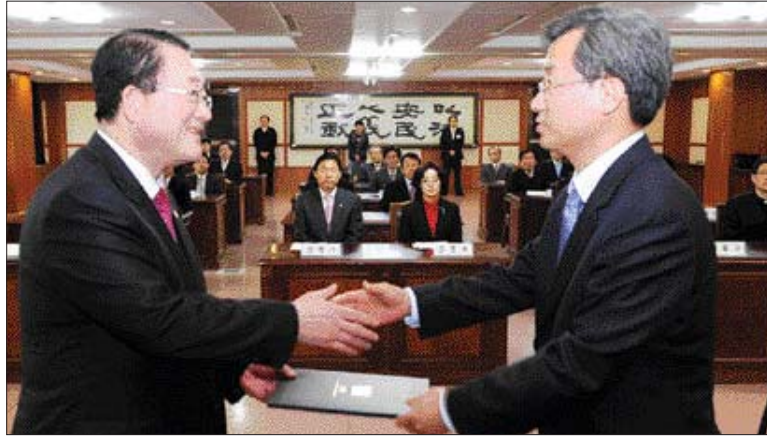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

교의 수상 실적 기록 금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생활기록부에 교의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의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각종 수상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단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23일 광주지방검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김태기 광주지검장(오른쪽)이 초대 심의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혁중 광주대 총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촉을 영광으로 여기고 헌신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잘못에 대해 사과·반성 참 스승 모습 보여주길...” 정광고 이사 비판문 남기고 사퇴

“잘못에 대해 사과와 반성하는 정광학원이 되길 바랍니다.” 학원 이사장이 지난해 교사 채용 비리를 직접 고발해 파문이 일었던 광주 정광학원이 이번에는 현직 이사까지 학교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사퇴해 파행을 빚고 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인 최모 교수는 최근 학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누리집'에 A4용지 4장 분량의 비판글을 올리고 사퇴했다. 최 이사는 '정광을 떠나면서'란 제목의 글에서 정광고 J교장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한편 법인 이사회의 반개혁적 학교운영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이사는 글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 채용 부실 운영으로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다”면서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올해에도 문제가 된 교사들의 연임을 제청하는 등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또 “지난해 임기가 끝난 현 정광고 교장의 재임임승인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사회 등에서 오히려 내 자신이 해임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광학원이 모교이기도 한 최 이사는 “교육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덮어주기에만 급급해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면서 “저는 떠나지만, 남으신 분들은 진정한 스승의 모습으로 서로 단결해 좋은 학교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교장·전문직 398명 인사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23일 교장과 교감,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각 128명과 270명 등 모두 39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6면) 정년 퇴임하는 양세열 광주 서부교육장 후임에는 이기우 동부교육청 초등과장이 승진, 임용됐다. 초등은 교장 36명, 교감 27명, 교육 전문직 9명 등 72명이 승진, 전보됐으며 중등은 교장 23명, 교감 16명, 전문직 17명 등 56명이 발령됐다. 모두 270명의 인사를 단행한 전남은 나주교육장에 김인숙 문항고 교장 등 교육장 6명이 발령됐다. 교장 승진은 초등 39명, 중등 34명 등 73명이 승진 및 전직하는 등 초등 101명, 중등 71명 등 172명이 승진 및 전보됐다. 인사명단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a 7-day weather outlook.

광주 낮 최고 19.8도 '봄 날씨'

23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19.8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지역은 완연한 봄날씨가 24일까지 이어지다가 25일부터는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점차 흐려질 것”이라고 23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8도로 전날보다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16~19도로 포근해졌다. 25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60mm.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도 낮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낙태광고 3회 땀 회원 박탈 산부인과 의사회 하는 등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섰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23일 “최근 의사회 윤리강령을 개정, 낙태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 등에 대한 불법 광고 사실이 세차례 적발되면 의사회에서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님 재산 중단 귀속령에 '시끌' 조계종, 문제 제기 잇따르자 시행 연기. 속세를 버리고 출가해 '무소유'와 '정정승가'를 내세우는 스님들의 개인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스님들도 재산이 있다. 신도들의 시주금도 있고, 사찰 불사(佛事)를 하려고 모은 후원금도 있다. 또 출가한 자식이 눈에 밟혀서 속가의 부모가 전해준 유산이나 용돈도 있으며, 은사 스님이 아끼던 상좌를 위해 물려준 재산도 있다. 스님들 사회에서는 머리를 깎은 후 스님으로 살면서 이룬 재산은 형성 과정이 어땠던 당연히 스승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스님들도 개인 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 역시 많다. 조계종이 스님들의 재산을 중단에 귀속하려는 법령을 마련한 가운데 요즘 스님들 사회는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23일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은 애초 지난해 21일 '승려 사유재산 중단 출연에 관한 령'(이하 중단출연령)을 제정, 다음 달 1일 시행하려고 했지만 23일 종무회의에서 이 법령의 적용을 올해 하반기 이후인 8.9월경으로 반년 정도 미루기로 했다. 중단출연 문제는 사실 조계종 내부에서 20~30년 전부터 논의됐

결로곰팡이방출 건강과 목적의 웰빙룸으로... (Kilomold Prevention and Well-being Room) advertisement for a health and wellness center.

헬스킹 기능화 (Health King Functional Shoes)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a pair of shoes.